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따뜻한 이웃...소외계층에 '큰 힘'

재능기부 스토리 소외 이웃에 물품 후원 줄이어

높고 병들어 미안한 할아버지 방에 선풍기를 한부모 가정엔 등뼈 갈비찜... 맛있는 기부 열기 탄소중립 실천 에코백, 순환경제의 마중물로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기증해주시기 위해 광주재능기부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조용호 관장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와 늘 함께 해야한다는 소신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컴퓨터를 기부해주신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 조선대학교 글로컬 '다전공 박람회' 에코백 순환 프로젝트 '다시들다'를 통해 모아진 에코백들을 '빛그리다 공동체' 최경화 대표께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다리미판 2개도 함께 기부해 주셨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들도 에코백 기부 교환, 체험, 교육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전환 등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부에 동참해주신 최경화 대표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은자 선생님은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매달 생리대 구입비용을 기부해주시고 계십니다.

기부해주신 물품은 생리대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리대 비용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김은자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하 문화' 회원들께서 이번 달에도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광주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해주셨습니다.

'하하 문화' 회원들은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기부된 반찬은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 20곳에 지원됩니다. 한 눈에 봐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6월의 메뉴는 등뼈 갈비찜, 미역줄기볶음, 달걀말이, 오이무침입니다.

특히 소산식품 임시호 대표께서 수제숯불갈비를 기부해 주셔서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반찬 기부에 동참해주신 '하하 문화' 회원들과 임시호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0대 김모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고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어린아이에 다니는 자녀와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으로 시집 와서 세 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한 뒤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어 했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만성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이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덮친 격으로 무릎까지 다쳐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 활동이 어려워져 국민기초수급권자



광주 남구 장애인복지관 조용호 관장(오른쪽)이 컴퓨터를 기부해주셨다. 왼쪽은 필자.



에코백을 기부해주신 '빛그리다 공동체' 최경화 대표(왼쪽).



'하하 문화' 회원들이 기부한 반찬.

가 돼 생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고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역할까지 도맡아 막내의 어린이집 등·하원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만으로 생활하다보니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날씨가 더워지는데 선풍기가 고장이 나 네 명의 식구가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힘들고 선풍기가 없어 더욱 마음이 무거웠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씨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0대 후반 김 모 어르신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 이혼해 자신이 손자를 돌보게 됐다고 합니다. 김 씨는 왼쪽 눈이 실명 상태고 심근경색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고혈

압과 당뇨 약을 복용 중이며 무릎관절에 핀을 삽입해 놓아 거동이 제한적이어서 손자를 돌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김 씨는 손자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살 형편이 안되다 보니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손자는 본인이 할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돌봐드린다 합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고장 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부채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풍기 두 대를 구입해서 할아버지 방과 손자 방에 각각 비치했습니다.

김 씨는 "나라도 건강해서 손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늙고 병 들어서 아무런 도움이 못돼 미안했는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늘 건강하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 431-0918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